

더불어 사는 삶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2005.1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in P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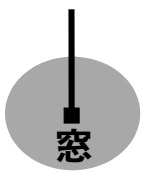
97호



‘아시아의 고통 함께 나눠요’- 1월 9일, 지진피해지역돕기 거리모금

부산시 진구 전포2동 193-9 송광빌딩4층 (614-865) TEL 051-802-3438, FAX 051-803-9630

E-mail : noja@kornet.net Homepage : <http://fwr.jinbo.net>



인권과 인격

정귀순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대표)

9년 전 인권모임이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굳이 활동의 영역을 정한다면 ‘노동자로서의 권리’ 를 지키는 노동운동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는 훨씬 더 기본적인 인격을 가진 한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지켜지는 ‘인권운동’ 이라 정정했다.

그동안 임금체불로 자신을 노동부에 고발한 중국동포가 꽤 많았다며, 차라리 길가는 개에게 던져주는 한이 있어도 절대 못준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회사사장과 또 자신에게 말대꾸한다고 얼굴이 퉁퉁 붓도록 필리핀 여성노동자의 뺨을 때리고도 그런 것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관리하느냐며 되물던 한국인 관리자와 싸우면서, 요즘 나는 인간의 권리보다는 인간의 격(格), 즉 품격이 지켜지는 사회를 꿈꾸게 되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한 것이라면 나 아닌 다른 이들의 권리 역시 소중한다는 인식은,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나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누군가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될 때,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것이 인권운동의 주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절대로 받지 못할 것 같았던 밀린 임금을 받고,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던 산재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씩 배워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살면서 타인과의 공존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철저히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참 송년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지난 연말 지진과 해일이 아시아지역을 덮쳐 약 17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고, 치료와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곳곳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그루게씨는 아버지와 세 명의 형 그리고 삼촌과 외삼촌을 포함하여 가까운 가족 16명이 이번 지진해일로 사망했지만, 연수생으로 한국에 온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그는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지만, 한 달 월급보다 더 비싼 비행기값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회사 측에 도움을 청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친구를 따라 인권모임을 찾은 그가 우리를 보고 웃어주었다. 나는 사람이 웃는 것이 슬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열흘의 특별휴가를 받아 스리랑카에 갔다. 다행히도 인도로 배낭여행을 준비하던 분이 한가롭게 배낭여행을 떠날 때가 아니라며 여행을 포기하고 그루게씨의 항공권을 지원한 따뜻한 일을 포함하여, 한국의 많은 이들이 지진해일의 피해지역을 위해 성금을 내고 직접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사회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해가 바뀌고 지난 1월 17일 휠체어를 탄 태국 출신의 세 여성이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경기도 화성의 LCD, DVD 부품제조회사에서 일하면서 유기용제에 중독되어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으나, 회사 측에서는 아무 말 없이 비행기표만 사서 출국시켜 버렸고, 최근에서야 이 사실들이 알려져 지난 1년간 방치되어온 이들의 치료를 위해 부랴부랴 재입국이 주선된 것이다. 하루 15시간씩 일한 대가로 하반신이 마비된 채, 아무 대책 없이 고향으로 돌려보내지고도 변변하게 항의 한번 하지 못한 이들의 맑은 얼굴을 보면서, 오늘의 한국사회의 격(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달력을 새로 걸었다고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삶의 마디가 생길 때, 사람은 비로소 시간이 바뀌었음을 느끼게 된다. 새해를 맞아 마음을 가다듬고 인간의 ‘격(格)’ 이 느껴지는 사회로 향하는 그 길을,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우직한 느린 걸음을 땀다.

존재의 기쁨

권혁근 (변호사, 한올타리운영위원장)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회사 제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브랜드가 있다. 골트문트라는 이름이 그것이다. 소유하는 것은 고사하고 부산에서는 골트문트사의 제품을 구경하기도 쉽지가 않다. 나도 아직 실물을 보거나 그 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다. 다만 오디오 전문 잡지에 간간이 실리는 제품 청취기를 읽고 그 소리를 상상해 보았을 뿐이다.

직접 들어본 사람들의 평가는 대체로 순백색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과, 젊은 시절 오디오 편력을 거치다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안락하게 되는 소리라는 것 정도로 요약된다. 순백색의 아름다움이라... 그것이 어떤 소리일까? 한동안 상상에 상상을 거듭하다 나는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소리를 음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맛일까? 산해진미 가득한 중국요리나, 없는 것 없이 모두 갖춘 뷔페 음식 같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내 상상속의 골트문트의 음은 겨울철 따뜻한 방 안에서 갓 지어낸 밥 한 공기과 먹는 시원하고 정갈한 김치의 맛이다.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어느 음식점을 가더라도 대량으로 만드는 음식 맛에는 한계가 있다. 정말 맛있는 김치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재료가 아무리 고급이라도, 메뉴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분위기가 아무리 좋은 음식점이라도 맛으로만 따지자면 내 입에는 결국 우리 어머니가 담그는 김치 한 줄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 없는 것이다. 궁극의 소리를 추구하는 매니아들이 골트문트사 제품을 장만하려면 엄청난 금전적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불도장을 맛보려는 미식이 또한 십 수만원의 지출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 비싼 불도장의 맛이 잘 담근 김치 한 줄기의 맛보다 나올까?

요즘 들어보면 조악하기 그지없는 에디슨식 축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에도 예전 사람들은 원음 재생이니 뭐니 하며 감동했다. 요즘 나오는 제품은 아무리 형편없는 것이라도 축음기가 발명될 당시의 음질보다는 월등히 우수한 소리를 들려준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옛날 축음기를 듣고 행복해 하던 사람들만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축음기를 듣고도 만족해하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일까. 그 보다 나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일까? 골트문트의 소리는 내가 상상하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예 차원을 달리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골트문트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음악을 듣고 감동을 느끼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다.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하면서도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0달러로 살면서도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1달러로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음향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축음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것보다 더 큰 놀라움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게 되더라도 경제적인 부가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행복감보다 더 큰 그것을 가져다 주줄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무엇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아닌 존재 자체에서 오는 행복.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올 한 해는 모두들 존재의 기쁨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2004 상담결산

작년 한해 인권모임의 유형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체불임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28.4%) 이어 퇴직금, 국제결혼 상담이 105건으로 15%를 세 번째를 차지했다(각 17%,15%). 작년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당시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였던 업체변경 상담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꾸준히 접수되는 산재상담, 최저임금이나 연월차 수당을 포함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 신분증압류 상담이 차례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상담 건수는 재작년에 비해 35%정도 감소했다. 근 몇 년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상담에서 50%를 넘게 차지하던 퇴직금 상담의 감소 때문으로 보여진다. 임금체불 상담은 작년보다 건수 면에서 많지는 않지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의해 다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상담유형에는 업체 복귀, 선박 침몰에 따른 보상관계, 보증금에 대한 상담,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상담 등이 포함되었다.

국적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던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줄고,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이 순서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버마 노동자들과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새롭게 인권모임을 찾기 시작하면서 작년보다 다양해진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을 의뢰했다.

올해 역시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의 칼바람과 고용허가제의 확대실시, 그리고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산업연수제의 존재로 이주노동자들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이주노동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욱 필요하고, 한국인들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없애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형	건(수)	비율(%)
임금체불	198	28.4
퇴직금	119	17
그 외 임금성	26	3.7
작업환경	7	1.0
신분증	31	4.4
연장	16	2.3
산재	51	7.3
업체이전	89	12.8
출국	16	2.3
폭행	16	2.3
국제결혼	105	15.0
기타	24	3.5
합계	698	100

♣ 2004년 인권모임 유형별 상담통계

국적	인원	비율(%)
네팔	2	0.3
러시아	15	2.2
방글라데시	17	2.5
버마	3	0.4
베트남	101	14.6
스리랑카	5	0.7
우즈베키스탄	14	2.0
인도	7	1.0
인도네시아	157	22.7
중국	173	25
캄보디아	12	1.7
태국	2	0.3
파키스탄	98	14.2
필리핀	76	11.0
한국	7	1.0
이란	1	0.2
미국	1	0.2
합계	691	100

♣ 2004년 인권모임 국적별 상담통계

2004 의료 결산

■ 일반진료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은 산부인과 진료의 증가인데,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주노동자 커플의 임신·출산이 증가하고 더불어 신생아 환자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무료진료소의 환자수가 감소한데 반해, 2차진료 환자수와 입원환자수는 오히려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의료환경이 그리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주노동자 본인이 근처 병원을 찾거나 약으로 해결하다 한계에 부딪혀서 인권모임에 의뢰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로 인해 무료진료소의 환자수는 줄고 2차진료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수술입원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병원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주노동자에게는 낮은 일이라서 인권모임을 찾는 환자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등록 노동자라 하더라도 수술을 요하는 병일 경우 회사에서 계속 고용을 꺼려 질병문제뿐만 아니라 체류와 치료 이후 거취 문제를 의뢰하는 환자도 상당수 있었다.

유형별	건수(비율)
소화기계	132(23.1%)
근골격계	123(21.5%)
호흡기	108(18.9%)
피부과	100(17.5%)
신경계	27(4.7%)
이비인후과	21(3.7%)
순환기	15(2.6%)
안과	13(2.3%)
비뇨기과	6(1.1%)
산부인과	5(0.9%)
내분비	4(0.7%)
기타	17(3%)
합계	571(100%)

♣2004 일반진료 질환별통계

국적별	인원수(비율)
베트남	126(22.7%)
인도네시아	114(20.5%)
방글라데시	61(11%)
파키스탄	67(12.1%)
네팔	56(10.1%)
필리핀	51(9.2%)
중국	19(3.4%)
인도	18(3.2%)
한국	10(1.8%)
러시아	9(1.6%)
캄보디아	9(1.6%)
우즈베키스탄	8(1.4%)
기타	8(1.4%)
합계	556(100%)

♣2004 일반진료 국적별통계

■ 치과진료

치과진료소에서는 올해 처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치과진료소를 찾는 환자의 대다수가 스켈링치료가 필요하고 구강보건교육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해가 갈수록 치과진료팀의 자원활동가수도 늘고 그 열의도 높아가지만, 최소의 시설로 진료를 하다보니 환자도 진료팀도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종종 있어 앞으로 진료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유형별	건수(비율)
스켈링 및 치주치료	263(45.7%)
신경 및 충전치료	213(37%)
발치 및 구강외과적처치	50(8.7%)
보철 의뢰	20(3.5%)
발치 의뢰	1(0.2%)
기타	29(5.0%)
합계	576(100%)

♣2004 치과진료 질환별통계

♣한 해 동안 진료를 맡아주신 의사선생님들과 진료도우미, 자원활동가들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 다문화가족지원활동 결산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2004년 다문화가족지원활동은 애초 계획보다 크게 활성화되어 한글교실, 영어교실, 나들이, 특별교육, 백일장, 김장담그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무엇보다 ‘외국인배우자를 위한 한글교실’은 외국인주부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꾸준히 열리고 교육이 원활해졌다. 이는 교육에 대한 외국인주부들의 절실한 필요성, 언론매체 등에 의한 선전효과에 의한 점도 있다. 그 결과 학생수가 증가하고, 학생들 간 원만한 관계형성, 관련 상담에 외국인주부들이 통역 등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등 인권모임 활동과 적극적으로 결합되고 있다.

계획했던 파키스탄, 이란 가족의 캠프와 나들이는 인권모임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한글교실 학생가족들의 참여가 증가로 자연스러운 가족모임이 이루어졌다. 이주남성과 한국인 여성 가정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이혼 등 다양한 상담이 증가하였고 한글교실 학생들이 통역 및 상담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상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드물며 정서적·심리적 지지로 끝난 경우가 많다. 한편 2004년 들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아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럼에도 어린이날 행사 및 기타 인권모임 행사에 가족이 모두 참석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2005년엔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어울림(가)」을 발족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정착 지원, 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권리보호활동, 다문화사회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한글교실과 컴퓨터교실을 지속하고 한국인배우자를 위한 배우자문화 바로 알기 프로그램, 한국사회 의식개선활동, 상담 및 외국인배우자 위상강화를 위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국적 유형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벡	이란	기타	합계
이혼	4	5	2	1	7	1	-	-	20
국적취득	6	4	2	1	7	1	1	-	22
비자	2	4	2	1	7	1	1	-	18
결혼	-	1	-	-	-	-	-	1	2
임신출산	10	-	2	1	2	-	-	1	16
가정폭력	2	3	2	1	5	1	-	-	14
성폭력	1	-	-	1	-	-	-	-	2
기타	3	1	3	3	-	-	-	1	11
합	28	18	13	9	28	4	2	3	105

♣ 2004년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 상담 통계

※ 한 해 동안 다문화가족지원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자원활동가 및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 결산 보고

항 목		금 액 (원)	
이월금		1,765,255	
수 입	정기후원	44,125,000	
	특별후원	8,374,560	
	기타수입	행사수입	3,042,500
		출연료, 원고료	735,908
		판매수입	381,000
	기금	독일	14,355,200
		국가인권위	9,000,000
		부산시	8,000,000
수입합계		88,014,168	
지 출	운영비	집세	10,565,280
		전화요금	2,550,030
		통신요금	825,550
		전기세	885,680
		신문도서	543,000
		사무용품	2,918,970
		복리후생	3,581,350
		우편요금	4,522,940
		난방비	884,000
		기타	356,050
	소계		27,632,850
	사업비	연대사업	765,000
		출장차비	4,113,150
		외국인 지원	424,430
		인쇄비	7,012,500
		행사비	13,699,360
		한울타리	630,550
		이중문화가정	1,231,330
		인권여행	913,980
		간식팀	133,770
		사진현상	196,480
	기타	1,108,550	
소계		30,229,100	
활동비		31,450,000	
지출합계		89,311,950	
잔액		467,473	

※ 2004년 한 해 동안 인권모임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인권모임 사업계획

2005년 정세와 전망

-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방침이나 고용허가제의 진행, 경기침체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고용상황의 악화 등 지난해 진행되어온 정부정책과 사회적 상황이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 반쪽짜리 고용허가제의 실시로 보다 왜곡된 외국인력정책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과 대응을 모색하며, 산발적인 문제제기와 관성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체계화시키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조직화가 구체화 되겠지만, 주로 장기체류 미등록노동자가 중심구성원인 탓에 단속과 추방 국면에서 다소 위축된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운동의 토대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 하에 노동조합의 차별한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규 이주노동자의 폭넓은 조직과 교육도 요구된다.
- 이주노동자 개인의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로, 노동권의 문제에서 시민권의 문제로 문제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시민권과 영주권, 문화사업 등) 당사자의 조직화와 문제인식을 높여나가는 것, 다양한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에 따라 상황과 문제 및 인식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단계별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기체류자의 경우 귀환정착프로그램과 시민권, 노동조합 등의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신규등록노동자들의 경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과 조직, 문화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개선활동

- ① 상담활동(유형·국적별 상담제 실시, 노동교육강화, 악덕기업 항의방문, 상담실 전문성강화)
- ② 의료지원활동(성폭력예방교육 및 구강보건교육 실시, 건강검진 및 종합진료실시, 의료재정확보)

이주노동자운동의 조직발전을 위한 활동

- ① 교육활동(신문발행, 가이드북제작, 교육자료 발간)
- ② 이주노동자조직과 국내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공동체 활성화, 노동조합조직화, 리더그룹 강화, 문화교류)

노동권을 넘어 시민권 확보를 위한 활동

- ① 이주노동자의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로 문제의식을 넓히고, 노동권의 문제에서 ‘시민권’의 문제로 인식을 넓히며 다문화사회로의 인식전환
⇒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어울림(가)’ 발족하여 상담 및 외국인배우자 위상강화 프로그램 진행

문화교육사업

- ①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배려하고 아시아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 나들이, 아시아문화한마당, 한국어말하기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와의 연대사업 진행

이주노동자의 미래를 위한 활동, 귀환정착프로그램

- ① 이주노동자들이 준비된 귀국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살며 자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
⇒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단위에서 논의 및 준비가 필요

인권모임의 조직적 발전을 위한 사업 활동

- ① 체계변화 및 활동내용영역의 확대 :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발족, 평화인권교육사업의 활성화
⇒ 사업과 활동내용에 대한 구분과 정리, 전문성과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 ① 활동가의 발전을 위한 내부세미나, 인권활동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 ① 후원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

인권교육사업

- ① 인권모임의 활동에서 인권의 이해와 지평을 넓혀나가고 인권교육이 전문화되도록 노력
⇒ 인권강좌, 인터넷 소식지발간, 인권관련 소모임 구성

정책연구사업 (이주정책연구소 준비)

- ① 중장기적인 이주노동자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 2005년을 연구소 준비의 해로 정하고, 연구주제선정과 주제별 연구진행, 자료정리 등 진행

특별사업 : 페스카마호 사건 수감자들의 지원 (수감 중인 외국인 재소자에 대한 지원사업)

2005년 행사 및 사업일정

- ☞ 1월 18~27일 제5회 인권강좌
- ☞ 2월 8~10일 설날행사
- ☞ 2월 24~25일 이주인권연대 총회
- ☞ 3월 9일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어울림 개소식”
- ☞ 4월 24일 봄나들이
- ☞ 5월 1~5일 노동절 및 어린이날 행사
- ☞ 5월 15일(혹은 22일) 자원활동가 인권캠프
- ☞ 8월 여름캠프
- ☞ 9월 추석 아시아문화한마당
- ☞ 10월 23일 한국어 말하기대회 / 창립 9주년 기념식
- ☞ 10월~12월“아시아와 친구하기”수업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연대사업)
- ☞ 11월~12월“고3 수능생 인권과 평화강좌”(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연대사업)
- ☞ 12월 1일 후원회원 송년의 밤
- ☞ 12월 18일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행사(송년회를 겸한)
- ☞ 12월 25일 자원활동가와 송년의 밤

나누며 사는 즐거움

또뚜야(버마 이주노동자)



안녕하세요? 버마노동자 또뚜야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어느 겨울날 공항문을 열고 나서는데, 온몸으로 느껴졌던 추운 바람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가장 강렬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7년 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온 가족들이 입국비용 3,500달러를 마련하느라 무척 고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첫 월급 40만원을 받고는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연수기간 3년 동안은 난생 처음 하는 힘든 공장 일에, 낯선 한국생활에, 말도 안 통하는 한국 사람들과 지내느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지만 잘 견뎌냈지요. 가끔 이주노동자들을 못 살게 구는 한국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모두에게 나쁘게 대해서 주위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지금은 한국말도 익숙하고 잘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 인천에서 일하다 부산에 온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미등록체류자 단속이 너무 심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회사 사장님이 너무 잘 대해줘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명절 보너스도 한국사람들과 똑같이 줍니다. 한 번은 '새끼야'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사장님은 딸에게도 '새끼야'라고 해서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구나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잔업을 거의 하지 않아 저녁시간을 자유롭게 보냅니다. 가족들이 보내준 책을 읽거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가끔은 밤새 컴퓨터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권모임에서 아시아문화한마당, 노래공연 등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교실에 다니는 친구들 소개로 인권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사람들은 한국에 온 지 얼마되지 않아서 비교적 한국말을 잘하는 제가 통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보다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일요일 인권모임에 나가는데 아침에는 미얀마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가 오후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된답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가게' 일일판매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날은 반대로 제가 누군가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받은 만큼 베풀며 사는 삶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진해일로 피해자들을 위해 친구들과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온지 두 서달 밖에 되지 않아 돈도 없을 친구들도 2만원, 3만원씩 냈습니다. TV에서 큰 해일로 가족들과 집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선 다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기 때문이에요. 버마에서도 지진해일로 인해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 100명 정도가 죽었는데 정부의 언론통제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은 돈이 직접 버마에 전달되진 않았지만 어느 나라 상관없이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또뚜야님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또뚜야님을 비롯한 버마 노동자들은 지진해일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 405,000원을 모아 인권모임에 전달하였습니다. 귀한 돈 모아주시는 버마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깊은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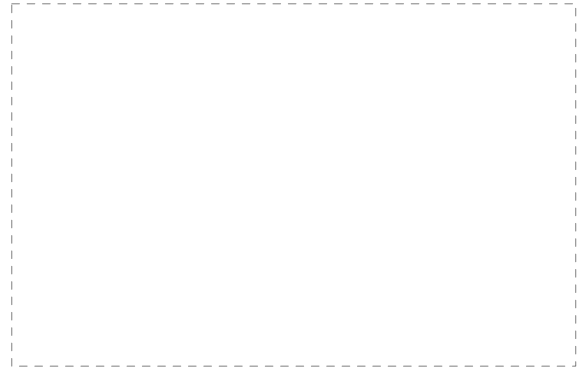
세상이 무너지는 참담함을 느껴보았습니까?

아버지와 형제3명, 삼촌과 외삼촌, 그리고 친척들까지 포함하여 가족 16명이 죽음에 이른 소식을 이국땅 한국에서 들어야 했던 스리랑카 출신 그루게씨. 남아시아를 강타한 이번 지진해일로 인도,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등 17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참사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가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의 집은 해변가가 아닌 언덕 위였지만, 안타깝게도 지진해일의 검은 파도가 밀려오기 전 그의 가족들은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 어이 없는 참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 지진해일피해로 사망한 그의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일을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둘째형은 택시운전기사로, 셋째형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귀여움을 떨던 막내 동생 역시 겨우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나이였는데, 막내마저 이번 참사의 희생자가 되면서 10형제 중 아홉째였던 그루게씨는 이제 자신이 막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친구로부터 가족들의 사망소식을 접한 그루게씨는 삼일동안 끼니도 잊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스리랑카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입국한 지 2개월밖에 안된 탓에 비행기 표 조차도 살 수 없어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세며 기숙사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사망소식을 전해들은 주위 스리랑카 친구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그에게 보냈고, 집에만 있을게 아니라 절에 가서 기도하며 죽은 가족들의 넋을 기리라고 충고해주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것일까요? 그의 딱한 소식을 들은 친구들과 사업장의 한국인 동료들이 그를 위해 모금을 하였고, 실직노숙자 쉼터 '부산 보현의집'에서는 그가 스리랑카에 다녀올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인도에



▲스리랑카 현지 가족들과 통화하는 그루게

여행하려던 한 시민은 지금은 여행할 때가 아닌 것 같으며 그의 가족들의 장례와 복구를 위해 여행자금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2개월 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그는 장림 무지개공단에 위치한 가족신발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화학약품을 다루는 탓에 피부가 좋지 않으며 쓴웃음 짓는 그에게 한국이 첫 해외취업은 아니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은 일을 못하시고, 스리랑카에서는 변변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이미 199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기 기사로, 운전사로 일한 바 있습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일한 후 스리랑카로 되돌아왔지만, 계속되는 실업과 가난은 또 다시 해외취업의 문을 두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14일 출국하여 폐허가 되었다는 고향마을 땅갈레 지역에서 살아남은 가족들을 만나고 복구 작업도 함께한 뒤 24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 후에는 스리랑카 불교 전통대로 사망 3개월 후 죽은 가족들의 제사를 지낼 생각입니다. 비록 한국 땅에서 치르게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스리랑카 스님들을 부산에 모시고 그렇게 가족들을 보내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 그루게님이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부산보현의집과 소진열남께 감사드립니다. 한국통신은 동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인권모임에 무료국제전화를 설치해주셨습니다.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지진피해지역돕기 모금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인권모임은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모금을 시작으로 1월 9일에는 서면 주디스대화 앞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거리모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인권모임은 지진해일 피해지역돕기 모금활동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후원계좌 안내

국민은행(정귀순) 957501-01-069129

♡ 모금현황

날짜	내역	모금액(원)
1. 2	인권모임 모금	109,370
1. 5	소진열님	1,000,000
1. 9	예수성심전교수녀회	300,000
1. 9	버마공동체	405,000
1. 9	거리모금	345,530
1. 11	(주)우연	3,000,000
1. 11	조병준김부경 님	1,000,000
1. 12	선옥 님	100,000
1. 14	이용일 님	100,000
1. 14	그루게씨 지원	-1,000,000
1. 14	박민주 님	50,000
1. 14	박광주 님	100,000
1. 20	모금함	60,000
현재잔액		5,569,900

♡ 지원현황

16명의 가족들을 지진해일로 한꺼번에 잃은 스리랑카노동자 그루게씨에게 1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잔액은 5,569,900원이며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거나 전국네트워크인 이주노동자인권연대차원에서 장기적인 지원방식을 의논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자들의 삶터 복구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NGO 활동가들을 위한 '민들레기금' 발족

♡ 민들레기금 취지

「민들레기금」은 지역(부산양산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자기발전과 재충전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지원사업을 내용으로, 2005년 1월 12일 발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지치 않고, 변화와 모색,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독지가의 기금출연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재충전의 기회, 시야를 넓히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에게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05년 상반기 배분사업“나의 꿈을 찾아서”

- 대상: 시민단체 경력 3년 이상, 혹은 현직 단체 경력 2년 이상의 실무자
- 지원분야: 국내외 교육 연수 및 자기발전과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 사업추진기간: 2005. 3. 20~2005. 10. 20
- 지원규모: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신청접수기간: 2005. 1. 12 ~ 2005. 2. 21
- 기타사항: 홈페이지 www.mindrefund.org 참조



이주노동자 정책 및 활동소식

지진피해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1월 3일 '지진해일 피해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발표하여 등록노동자의 경우 공항에서 바로 재입국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노동자는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 면제와 현행 1년간 입국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진출국한 미등록노동자들의 재입국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생색내기엔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조치가 발표된 후 출국한 피해국 미등록노동자의 수는 미미하였습니다. 피해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돕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한시적 특별조치를 주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특혜를 주었다는 선전을 하며 단속과 강제추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지진해일 피해국 국민들에 대한 재입국 허가서 발급을 통해 재입국을 보장할 것과, 2월 10일까지로 돼 있는 자진출국 시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국 미등록체류자 항공료 할인

아시아항공은 1월 7일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피해국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콕과 싱가포르, 자카르타, 델리노선에 대해 요금의 75%를 할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요금할인은 오는 2월10일까지 인천발 편도 및 왕복요금에 모두 적용된다. 아시아항공은 "가족의 생사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하고 싶어도 비싼 비행기요금 때문에 가지 못하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등록체류자 합동단속반 출범

정부는 13일, 미등록노동자 단속, 악덕 고용주 및 알선 브로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위해 출입국관리국과 경찰, 검찰 직원이 합류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반을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 한해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근절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보여집니다만 미등록체류자를 만드는 왜곡된 인력정책의 개선 없이는 정부의 단속정책이 실패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보다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글리 코리안 컴퍼니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지난 6월22일부터 7월8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해외 한국기업 노동자인권 워크숍 및 귀환이주노동자와 만남'이란 보고서를 지난 12월 29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스미랑 지역 한국 기업들은 전체 노동자의 90%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1개월 단위로 계약,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연장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매일 12~14시간 근무하고, 밤늦게 퇴근할 때도 귀가 교통수단이나 교통비 등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조사단이 7월3~4일 필리핀 까비떼 수출자유지역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가한 현지 노동자들은 "한국 기업이 유독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심하다"고 증언했고 노조를 만드려는 노동자 집에 회사 직원이 총을 들고 찾아가 협박한 사례도 접수했습니다. 국제민주연대 최미경씨는 "한국 기업은 노동자 인권탄압 측면에서 다른 다국적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정도"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여성노동자 '앞은맹이병'발병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 LCD·DVD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태국인 여성노동자 5명이 12일 유기용제에 중독, 하반기 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앞은맹이병) 판정을 받아,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밀폐된 검사실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마스크나 장갑·안경 등 보호장비 없이 최소 7개월에서 최장 3년 동안 출하직전 제품을 유기용제로 세척하는 작업을 해온 이들은 지난해 11월초부터 작업도중 무릎이 아프고 저리다가 점점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나기 힘든 정도에 이르자 최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측은 이들에 대해 '노말핵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이미 귀국하였으나 현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마비증세가 상반신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이들의 산재치료와 보상절차를 위해 17일 함께 입국하였습니다. 한편 화성경찰서는 업체대표와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노동부는 노말핵산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 고용 전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모임 활동소식

자원활동소식

•한글교실 평가와 계획

한글교실에 있어 작년 한해는 참 많은 사건사고가 있기도 했지만 교사와 학생이 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한해였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감에 있어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꾸준히 활동을 해 오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했고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간에 마음이 잘 맞아져서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덕인지도 모르겠네요. ^^ 올해에도 다들 언제나처럼 자기자리에서 꾸준히 맡은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05년 행사일정

1월말 경~2월 졸업식

1~2월사이 교사단합.MT (경주일성콘도예정)

3월 문화체험

9월 가을소풍

10월 한국어말하기대회

•일반 진료팀 평가와 계획

약도 많아지고 약장도 들어오고 청진기도 들어오고 체중계, 키측정기, 소변검사, 당뇨측정 등 시설적인 면에서는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좌 참석을 통한 교양강화, 약의 전문성을 위한 자체교양, 활동가들 사이의 의견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것, 만성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하지 못했다는 점이 내년이 보완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교양강좌와 행사에 참여, 의견교류와 모니터링을 위해 게시판을 활성화 시키는 것 (진료일지, 장기 관찰 요하는 환자, 특이사항, 건의사항 교양자료등 등재), 약에 대해 자체교양을 위한 자료집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나다.

•컴퓨터팀 평가와 계획

작년에는 컴퓨터교실도 없고 컴퓨터도 없이 시작했지만, 올해는 다르네요. 좋은 컴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확보되었습니다. 올해의 바람하나, 컴퓨터교실 안정화입니다. 우선 경험과 시스템이 정리되고 교안도 확보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바람두울, 컴퓨터교사 버전업!! 바람세엿, 컴퓨터팀에서 컴퓨터교실로의 전환. 바람네엿, 홈페이지 전문가 확보. 바람다섯, 인권모임 스텝들 버전업!입니다.

인권모임 신년회의

지난 1월 17일 인권모임 실무자들은 2005년 신년회의를 통해 2004년 활동평가와 새해 활동계획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작년 한해는 고용허가제 시행,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 상황의 변화로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의 활동이 보다 다양화되었고 인권모임 역시 크게 다문화가족지원활동이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인권모임은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발족, 인권의 이해와 지평을 넓혀가기 위한 인권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권모임 활동이 점점 다양화, 세분화되는 만큼 각 성과들이 전체의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해 인권모임활동가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인권강좌 진행 중

지난 1월 18일부터 “생명과 자유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제 5회 인권강좌가 진행 중입니다. 남은 3강,4강좌에도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3강(1/25 화) : 통일시대 북한의 자유와 인권

· 4강(1/27 목) : 다름과 같음-동성애자의 인권

공익사업축소반대 집회 참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인원을 10명이상, 공익형 사업을 축소하고 수익형사업을 확대하는 노동부 지침에 반대하며 지침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1월 20일 롯데호텔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설날행사

2월 8일, 화요일, 김해 박물관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현님이 컴퓨터를, 삼성섬유 김현태님이 쉐리닝을, 이광수님과 민주노동부산지역본부에서 겨울옷을 그리고 박재환님이 커피3박스를 기증해주셨습니다. 파키스탄 자누, 왈리님이 새해 파키스탄음식을 만들어주셨고 대왕인쇄 송수남님이 인쇄비를 지원하셨습니다. 첫째 주 김기환님부 부께서 맛있는 간식을, 둘째 주엔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예비수녀님들, 셋째주엔 나눔의 씨앗에서 간식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지진피해지역돕기 거리모금에 함께한 자원활동가들, 모금운동에 동참해주신 소진열님, 정철상님, 조병준 김부경님,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수녀님들, 미안마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거리모금에 동참해주신 많은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 원 안내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는 재정후원을 비롯하여 외국어 통역과 번역,
자매결연, 시간별 자원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삶을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권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이런 일에 쓰입니다.

- 이주노동자 상담실(임금체불, 산재사고, 퇴직금미지급 등 노동상담 및 생활상담)
- 무료진료소운영(일요일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건강검진, 응급환자지원), 교육자료발간
- 한글교실운영, 컴퓨터교실운영, 문화한마당개최, 한국문화교류프로그램, 이주노동자캠프개최
- 이주노동자 신문발행(Asian Workers' News,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신문),
- 이중문화(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특별프로그램(한국적응과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 긴급피난처 및 이주노동자교육문화공간 「한울타리」 운영, 일요일 간식제공
- 한국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가족지원 등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부탁드립니다.

인권모임의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하여 후원회비는 자동이체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이체하는 방법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가지고 가시면,
매월 정기적인 날짜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 : 213-02-001807-3	정귀순
농협 : 929-12-180511	정귀순
국민은행 : 104-01-1243-062	정귀순
우체국 : 601385-02-088454	정귀순
외환은행 : 039-38-06629-8	정귀순



새로 인권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자희님 장태영님 박애란님 심지현님